

## **[투쟁결의문]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분쇄하고 공영방송, 언론자유, 민주주의 사수하자**

경찰의 잔혹한 군화 발에도, 곤봉과 방패와 살인적 물대포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밟히면 밟힐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촛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진정한 반성을 요구하는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며, 실정과 혼란의 모든 책임을 방송에 떠넘기고 있다. 수구족벌 조중동 쓰레기의 업호를 받으며 오히려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자신의 최측근 최시중을 앉히며 이미 방송장악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대선특보들을 YTN,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 국제방송에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 앉히며 방송장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감사원, 국세청, 검찰을 총동원해 공영방송 KBS의 사장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의 위협을 알린 <MBC PD수첩>에는 검찰 수사라는 철퇴를 내리고 방통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감히 상상치 못했던 저열하고 치졸한 수법에 국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왜 이처럼 집요하게 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 하는지, 조중동이 왜 방송을 때려잡기 위해 이처럼 발악하는지. 그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보듯,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 빌붙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상위 1%를 위한 정권이라는 진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분노한 촛불로 잠시 숨죽이고 있지만, 방송에 재갈을 물려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은 후,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초토화 시킬 공공부문 사유화, 한반도의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할 대운하 사업, 평화와 통일을 거부하는 대결적 남북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철저하게 분쇄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임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감사원, 국세청, 검찰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음모를 철저하게 분쇄한다.

하나, 우리는 낙하산 인사를 통해 YTN을 비롯한 언론기관을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도에 맞서 모든 힘을 모아 끝까지 저지한다.

하나,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점을 보도한 <MBC PD 수첩>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명박 정권을 구하기 위  
한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돌파한다.

하나, 우리는 미래세대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영방송, 언론자유, 민  
주주의 사수를 위해 힘차게 투쟁한다.

**2008년 7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